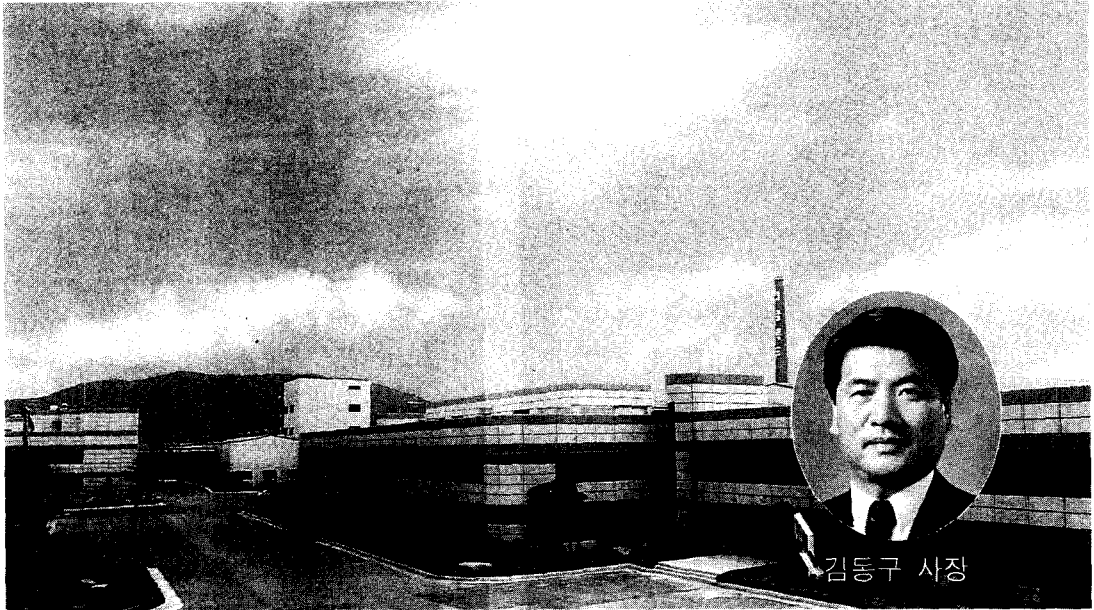


# (주) 금복주



“작은 물방울, 작은 모래알이 거대한 대양과 즐거운 대지를 만드노니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짧은 시간도 거대한 영원의 시대를 만들 것이니라.” 미국 시인 카니는 그의 저서 ‘작은 것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친숙한 경구처럼 늘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이 대구 경북의 자량과 자존심역할을 특특이 해내는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인 복영감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복주(대표이사 金東求)를 찾아가 보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06-6 성서공단내에 자리잡은 금복주는 1957년 4월 11일 삼산물산사의 기타주 면허를 인수하면서 주류산업에 진입하여 위스키, 진, 브랜드, 포도주류를 생산, 판매 하기 시작하여 1958년 희석식 소주인 진성과 합성 청주인 보화를 생산 시판하였다. 회사의 사세가 늘어남에 따라 이듬해인 1959년 12월 삼산양조 합자회사로서 법인 설립을 하였다.

1960년도에 복주라는 상품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 대구 지역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최

고의 소주 금복주’란 멘트와 함께 방송 전파를 타기 시작한 금복주는 72년 7월 부산출장소, 73년 7월 대전 출장소의 개설 및 74년 10월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금복주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75년에는 경북 소주를 합병 (주) 금복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77년 1월 만보양 조합자회사 영업권 인수를 함으로써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고 더불어 국제청의 1도 1소 주사 정책에 발맞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81년 11월 기타재제주 면허를 취득하였고 81년 초, 희석식소주 시장 확장과 함께 제2공장이 준공되었으며, 83년 6월 과실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였다. 동사는 86년 1월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써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기쁨을 맞이하였으며, 87년 1월 금복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자 금복주 30년사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년간 22,809,600 K/L를 생산할 수 있는 제 1공장과 97,497,600K/L의 제2공장을 갖춰 충분한 생산능력을 자랑하며, CASEPAKER 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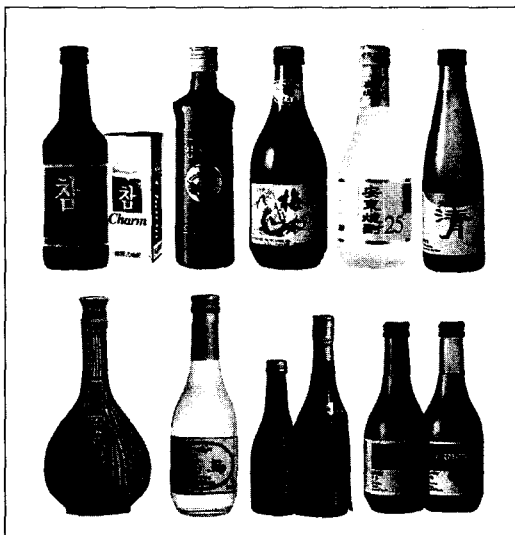
케사 자동검병기, 세병기, 주입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별적이고 전자동화된 공정의 시설 확장으로 업계를 이끌고 있다. 또한 1991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내 2만여평의 드넓은 대지위에 마련한 금복주 성서공장은 매머드급 주류공업단지로서 최첨단 기계 설비와 최고의 주조 공법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생산라인을 하나로 통합함은 물론, 모든 생산의 전 공정을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화 공장을 갖추므로써, 분당 1천병, 1일 1백만병 생산이 가능하며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고 있는 금복주는 현재 달성군 가창리에서 지하 160m의 대립 생수를 사용하여 순하고 부드럽고 산뜻한 맛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소주업계 최초로 알카리성 소주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백색병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주류업계 최초로 수퍼 골드 병을 도입하는등 관련 업계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금복주는 수출주를 포함하여 38가지나 되는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볼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충족을 위해 주류 개발에 있어서 항상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금복정신이 깃든 제품으로 독도가 있는데 소주 1병당 10원의 기금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출시된 독도는 엄선된 천연 벌꿀과 MS 공법(분자 여과)으로 뒷끝이 깨끗함이 일품이다.

올해 9월 9일 새롭게 등장한 꿀소주인 프리미엄급 소주 영의정은 옛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고유의 술로써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재현하였다고 하며, 옛 선비들이 갈구하던 영의정 당상관의 흉배를 심볼로한 조선 시대의 최고 계급임을 인식하여 이에 걸맞게 최고의 소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소비자가 찾게되는 소주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금복주는 소주의 쓴맛을 획기적으로 제거한 참소주를 개발하게 되어 소주업계의 신선한 충격을 일으킨바 있다.

또한 매실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엄선한 우량 품종만으로 제조 숙성시킨 100%원액의 매실주인 매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젊음의



[제품사진]

제품명	용량	도수
참소주	360 ml	25%
참소주 PACK	200 ml	25%
영의정	360 ml	25%
금복 관광용	375 ml	25%
금복주	640 ml, 1.8 l	25%
독도	300 ml	25%
매향	375 ml	14%
하모니 레몬	300 ml	12%
하모니 체리	300 ml	12%
화랑	375 ml	14%
경주법주 화랑	900 ml	17.5%
경주법주	300,500,700,900 ml	16%
수퍼청	300 ml	16%
안동소주 25	300 ml	25%
안동소주제비원	400,800 ml	45%

[생산품목]

카테일인 하모니 껌리와 레몬, 옛부터 전해오는 안동소주의 제조방법을 전승 발전시킨 금복주의 또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는 안동 제비원소주, 100%순곡주로서 현대 취향에 맞게 브랜딩한 안동소주 25등은 금복주의 장인정신과 현대적 시설, 고도의 기술이 결합된 자랑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잘 나타내주는 술이 있다. 금복주가 1972년에 설립한 경주법주(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주법주(16%)와 단지 하루에 500명만 판매 할 수 있는 순 100% 찹쌀로 빚어 제조한 화랑(14%)이 그것으로 저온에서 90일 이상 발효 시킨뒤 다시 60일 이상을 숙성시킨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는 향토색 짙은 술이다.

소비자의 기호를 선도하는 기업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명품들의 산실인 금복주는 기업 경영철학도 남다르다.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유기적이고 생기있는 기업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좋은 기업의 이미지와 올바른 기업정신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또한 이를 실천하는 경영인의 마음 가짐 또한 사회의 한 구성체임을 인지할 때 기업과 사회와의 유대적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기업활동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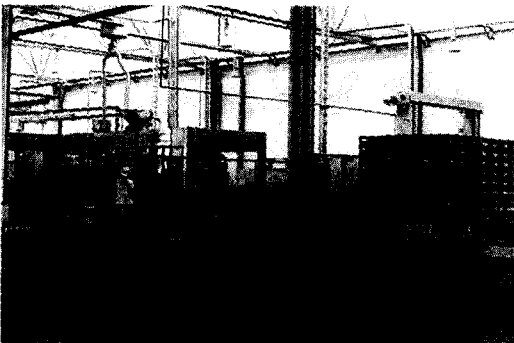
“창의적 노력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인화와 단결로써 기업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사훈에서 살펴보듯이, 245명의 전임직원

은 단지 이윤추구뿐만이 아닌 인성 및 자아 개발과 단합된 힘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조화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번 탐방으로 감명깊게 느낄 수 있었다.

10년전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정신하에서 설립된 금복재단은 해마다 금복 문화 예술상과 대구 경북 지역에 피아노 없는 학교가 없도록 피아노를 증정하는 등 향토 문화 보전 사업과 사회 문화, 육영 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매년 시상하는 금복문화예술상은 명실공히 대구 경북 지역의 예술인이라면 한번쯤 수상되기를 바라는 권위가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대구 경북의 불경기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복주는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곧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모든 임직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된 결의로 합쳐져서 1991년 이전한 성서 공장과 함께 제2의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 및 WTO체제하의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며, 기업은 기업내 시너지 창출효과와 차별적이고 비교우위적인 상품개발 및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곧 기업내부의 효율성을 강화 시키고, 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국내 주류시장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수입주류와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상품개발 및 유통망 강화등 경



[금복주 성서공장내부]



[금복문화예술상 시상]

쟁력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항상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직한 복영감의 이미지처럼 항상 우수한 인

재양성과 신제품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금복주의 미래는 매우 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 현황 및 연혁

현		황	
회 사 명	주식회사 금 복 주		
대 표 자 명	김동구(金東求)	창업자명	金 泓 殖
회 사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306-6) TEL:053-582-5111		
공 장 주 소	상 동		
창 립 기 념 일	1957. 4. 11	자본금	40억원
종 업 원 수	245명	임원 : 6명,	사무직 : 155명, 생산직 : 84명
면 허 종 목	회석식소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일반증류주, 과실주		
생 산 주 종	참소주골드, 독도, 영의정, 금복관광, 640ml, 1.8 l		
사 훈	창의적노력으로 자기를 계발하고 인화와 단결로써 기업을 발전시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연		혁	
년 월 일	내 용		
1957. 4.	창업		
1962. 1.	증류식소주, 회석식소주 면허취득		
1965. 1.	회석식소주 생산개시		
1972. 7.	부산사무소 개설		
1973. 7.	대전사무소 개설		
1974. 9.	인천합동소주공업(주) 합병		
1974. 10.	서울사무소 개설		
1975. 1.	주식회사 금복주 설립등기		
1980. 9.	2공장 매입		
1981. 10.	기타재제주 면허취득		
1982. 10.	광주사무소 개설		
1983. 7.	태양주조 인수		
1984. 8.	과실주 두리랑 시판		
1985. 5.	사보발행 개시		
1986. 9.	드라이진 빅벤 시판		
1986. 10.	경남사무소 개설		
1991. 5.	성서공장 이전		
1991. 10.	회석식소주 수퍼골드 시판		
1992. 3.	증류식소주 면허 취득		
1993. 1.	안동소주 체비원 시판		
1994. 4.	회석식소주 참소주 시판		
1996. 5.	회석식소주 독도 시판		
1996. 6.	회석식소주 영의정 시판		